

# 향토유통업체 '빅마트' 법정관리 개시

## 관리인에 하상용 대표...자산 매각 통해 경영정상화 박차

법인이 광주·전남 유일의 향토유통체인 빅마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빅마트는 채권 변제기간이 늦춰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채권 상환과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빅마트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잇단 진출에 맞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금융

비용 급증·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지난달 10일과 11일 3451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면서 "회사가 파산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상용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정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면 채권 상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빅마트는 자산 규모 366억원에 부채 32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406억원, 경상손실 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광주지역에 진출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2007년 매출액 646억원, 경상이익 63억원이던 것이 2008년 이후 매출이 떨어지면서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000회 금자탑 쌓은 광주경총 '금요 조찬회'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연수회가 1000회를 맞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이 1000회 기념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0년 세월 광주경제 '소통의 장'

## 강운태 시장 특별강연... 400여명 참석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엄홍섭·이하 광주경총) 금요조찬연수회가 1000회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경총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금요조찬연수회 1000회 기념식 및 강운태 광주시장 초청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임충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 고재일 대창운수 회장, 최상욱 남화토건 회장, 정영준 해양도시가스 사장, 김국용 무등 회장,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엄홍섭 회장은 기념사에서 "20년 전 낙후된 지역경제로 지역민의 삶이 어려울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금요연수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로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학습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000회의 역사는 지역의 위대한 힘이 합쳐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큰 힘을 모아 광주 경제 발전의 위업을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엄 회장은 광주시장과 한국경총으로부터 공로패를,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경총은 금요조찬연수회에 공헌한 박용환 전 광주경총 회장과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강운태 광주시장의 '민선5기 광주시장 운영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이 열렸다. 강 시장은 강연에서 민선5기 역

점식적으로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진 어린 문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체, 세계 속의 인권평화공동체를 제시했다. 특히 강 시장은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1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빛고를 중소기업 지원단 구성, 정밀검역·전자·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육성, LED특화단지 조성, 전통시장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요조찬연수회는 지난 1990년 6월1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20년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1시30분동안 열려온전통과 권위의 명품 포럼이다. 연사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배순환 대우전자 회장, 정운찬 국무총리, 이해인 수녀, 이소연 한국 최초 우주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거쳐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LED기업 '러' 길거리 밝힌다

## 모스크바 조명 프로젝트 참여 광산업진흥회-러 정부 MOU



한국광산업진흥회 조규중 상근부회장(왼쪽)과 러시아 에너지청 이바노프 티모르 바디모비치 청장이 한-러 LED조명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 제공>

국내 LED조명 기업들이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와 관공서의 불을 밝힐 전망이다. 18일 광주 첨단산단에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한국광기술원은 조규중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교류협력단'을 꾸려 지난 11~15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교류협력단은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청과 LED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지난 1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LED조명 기업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LED조명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러시아 에너지청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MOU 체결로 올 하반기 추진되는 모스크바 외곽 제4순환도로 LED가로 등 설치 사업(사업비 약 100억원)에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업진흥회와 러시아 에너지청은 MOU 체결에 따라 양국간 실질 협력을 수행할 국제공동협력센터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그린빌딩 지정 및 백열등 대체용 LED 도입과 인공·웨이퍼·씨드·형광물질 등 LED원자재 공급, 기술·인

력·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제3국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 LED 식물공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한국 조선업, 中에 추월 당했다

## 수주·건조량 등 1위 내줘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모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8일 국제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상반기 선박 건조량은 747만889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801만4148CGT를 기록한 중국에 밀렸다. 한국이 선박 건조량에서 반기 기준으로 중국에 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연간 기준으로도 중국에 1위를 빼앗길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선박 수주량에서도 462만CGT(점유율 38.0%)로 중국(502만CGT, 41.2%)에 뒤졌으며, 6월 말 기준 수주잔량 역시 4925만1천753CGT로 5330만7천252CGT의 중국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대대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하면서 오는 2015년부터 한국을 추월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목표 시점이 5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제조업 경기 살아나나

## 취업자 10년만에 최대폭 증가...2분기 400만명 상회

지난 20년간 전반적 감소세에 빠졌던 제조업 취업자가 10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경제위기 직전 수준을 웃돌만큼 늘어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17만2000명) 늘어난 40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추세적 감소에 따라 400만명선이 붕괴된 2008년 2분기(399만3000명) 이후 다시 40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증가율과 증가 규모는 2000년 3분기(5.8%, 23만6000명) 이후 최대치

다. 증가 규모는 2분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43만3000명)의 40%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출이나 설비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호전되고 민간 고용이 살아나면서 제조업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을 웃도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위기가 시작된 2008년 3분기에 393만4000명, 직전 2분기에는 399만3000명이었다. /연합뉴스

## 기아차 美 비전 어워드 대상

기아자동차가 발간한 2010년도 지속가능보고서 'MOVE(무브)'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 주관 연차보고서 경연대회인 '비전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전진'을 주제로 지난 3월 발간된 '무브'는 비전 어워드 전 부문에 출품된 세계 25개국 4000여개의 연차 보고서 중에서도 통합 9위를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398회)		2등보너스 숫자				
10	15	20	23	42	44	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680,625,550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7,647,862				31
3	5개 숫자 일치	1,607,090				1,112
4	4개 숫자 일치	62,263				57,405
5	3개 숫자 일치	5,000				968,563

▲ 코스피지수  
1,738.45 (+15.44)

▲ 코스닥지수  
498.88 (+6.73)

▼ 금리 (국고채 3년)  
3.92% (-0.02)

▲ 원·달러 환율  
1,203.50원 (+7.5)

※수치는 16일 기준 1주 전과 비교

광주·전남 大山프리모닝네기발  
기능장 보호

타사제품 가짜 관리서비스 체험찬스  
4월7일-7월 30일까지 (매일)

가발

초슬림!!

각각 50만원

귀여운 풀워엄 인격을 보여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52-873-5358, 872-4822  
관람이후 제 011-067-5300

남성 탈모 / 여성탈모

탈모

초전성모의원

최종가 빠름수용 효과를 뛰어넘어

초전성모의원 오환 연구의 항진열 바형으로  
탈모에 대한 혁신적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초전성모의원

010-0508-1380  
054)931-4870